

신평시장 개척자... 더 큰 꿈 꾀지도 못한채

(신용평가)

김광수 나이스그룹 회장 연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에 이
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와 사람이 가
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김광수 나이스(NICE)그룹 회장이
꿈꾸던 미래다. 꿈을 다 펼쳐보지 못한
채 55세라는 젊은 나이에 6일 오전 가
족과 지인의 곁을 떠나 주변을 안타깝
게 한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
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으며, 8일 오
전 영면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정옥 여사, 아들 원우 씨와 딸 수아
씨가 있다.

고인의 빈소를 찾은 재계 한 최고경
영자(CEO)는 김 회장을 ‘특별한 사
람’이라고 칭하며 “나이스그룹을 불모
지나 다름없던 국내 신용평가시장에서
한국의 ‘무디스’라 칭해도 손색없는 기
업으로 키워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일찍 곁을 떠날 줄 몰랐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고 김광수 회장.

또 다른 관계자도 “마지막 인사조차
할 기회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고인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고인의 열정과
꿈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안타
까워했다.

김 회장은 금융권 CEO 가운데 특이
한 이력을 가졌던 인물이다. 전자공학
과를 나와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의 첫발
을 댄 뒤 휴대전화 부품업체를 차린 제
조업 출신이다. 또 언론에 자주 등

장하지 않아 베일에 싸인 인물이기도
하다. 한때 ‘기업사냥꾼’ 의심을 사 금
융당국이 내사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사석에서 본 그는 잘생긴 외모에 패
션 감각이 뛰어난 젊은 50대 CEO였다.
그의 경영철학은 정도, 자율, 공평이
다.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정도경영’,
직원들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율경영’, 성과를 공
정하게 배분하는 ‘공평경영’의 3가지
요소만 갖추면 기업의 미래는 보장된
다고 믿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돈이 아닌 영속성에 있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일본의 500년 된 우동
집이 한때를 풍미하다 사라지는 대기
업보다 더 값지다고 여겼다.

그는 평소 ‘실제적인’이란 단어를 자
주 썼다. 자신도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사전적 의미로 ‘공상적인 것
을 배척하고 매우 현실적’이란 뜻이
다. 회장 집무실 크기도 16㎡(5평)가
채 안 될 만큼 효율성을 중시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최종구, 印尼에 고위급 회의 정례화 제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도네시아에 방
문해 금융당국 고위급회의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해 지난 4-6일 인
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
국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현지 영
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 금융회사
현지 대표들과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
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
하고, 현지 규제와 관행을 준수할 것을 당
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할 것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일에는 윈보 산토소(Wi
mboh Santoso)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장과 ‘한-인니 금융당국 최고위급 회의’
를 열고 양국 금융당국 간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OJK) 윈보 산토소(Wimboh Santoso) 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
해 설명하고 양국 금융당국 고위급회의 정
례화, 상호 교류 확대, 금융인프라 협력 확
대 및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
다. 아울러 한국 금융회사와의 간담회에서
파악한 현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도 요청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국지엠 사태, 집안 불부터 꺼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한국지엠 사태가 군산공장 폐쇄 이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제너럴모터스(GM)의 해외사업
부문 책임자인 베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이 본
격화 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
서 앵글 부사장과 GM 본사는 비즈니스
협상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 정부의 지
원을 끌어내기 위해 GM은 국내 3개 사업
장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공장을 목표로 삼고 한국 정부를 단계적

으로 압박한 것이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지엠을 지원하는게 맞는
거야?”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세금을 날
리지 않게 냉정하게 해야할텐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걸기까지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했다. 가
장 큰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실
제로 최근 군산공장 가동률은 20%를 밑
돌았다. 군산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력은
약 1만3000명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폐
쇄 이후 불어난 파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선데 달린격으로 창원공장이 공장 가동
률 하락과 일부 생산차량의 단종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구조조정 of 수
순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으로 치닫게 된 것은 GM의 경영패착과
강성노조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파업 등
여러가지 사태가 얽히면서다. 현재 GM본

사는 3월 신차배정을 예고하며 한국지엠
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구조 개선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이
후 창원공장 구조조정 소식이 이어지면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갈등
은 갈수록 증폭되면서 관계 개선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내부적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
해 공적자금이나 국민혜세를 지원하는건
‘말뼌진 독 물붓기’가 될 것이다. GM의
글로벌 플랫폼 통합 등 전략에 대한 면밀
한 검증과 한국지엠의 부실에 대한 철저
한 실사 없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수년간
의 연명에 세금을 털어넣는 결과가 될 것
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불황은 앞으로도
추가로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
져야 할때다. /ysw@



롯데지알에스-다문화종합복지센터, 다문화가정 후원 MOU
롯데지알에스가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자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지알에스와 다문화복지센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레인보우 행복 프로젝트’ 타이틀로 ▲스포츠 체험 교실 ▲다문화 가정 결혼식 지원 ▲한국어 학습 교실 ▲직업 체험 교실 등 연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롯데지알에스 김상형 영업본부장(오른쪽)과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손병호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알에스

롯데 앱 브로슈어, 독일 iF 디자인상 수상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 영예

롯데그룹은 롯데그룹 앱(App) 브로슈
어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6
일 밝혔다.

롯데는 매년 그룹의 현황을 소개하는
브로슈어 인쇄물을 만들었으나 지난해 창
립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앱 형태의 브
로슈어를 함께 제작했다. 사용자의 접근
성을 높이고, 그룹의 50년 역사와 뉴 비전



롯데 앱 브로슈어 /롯데지주

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인사

-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김현수
- ◆GC녹십자 ▲개발본부장(상무) 이재우
- ◆부산항만공사 ◇2급 전보 ▲안전·민원·서비스 개선 TF장 황호경 ▲부산항 환경개선 TF 류시춘 ◇3급 전보 ▲항만건설부 운영기
- ◆키움증권 ◇팀장급 ▲프로젝트투자본부 프로젝트투자팀장 김광빈 ▲리서치센터 성장기업분석팀장 김상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신선미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3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제3909호 / 0003호	

△정책연구실장 마경희 △성평등정책혁신전략실장 황정임 △경영지원실장 이규춘 △감사실장 권주미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최유진 △성인지애선센터장 조선주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 김은지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장 안상수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장 직무대리 이인선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직무대리 이동선 △성인지데이터센터장 주재선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직무대리 장은하 △연구기획팀장 김소영 △연구평가팀장 정가원 △예산기획팀장 이현화 △인사총무팀장 유명희 △재무회계팀장 직무대리 이은지 △정보관리팀장 김성익

◆한국교원대 ▲부총장 조순목 △입학학부생처장 강성주 △기획처장 이영준 △대학원장 박병기 △제1대학장 손준중 △제2대학장 민찬규 △제3대학장 김성하 △제4대학장 민경훈 △산학협력단장 김현진 △종합교육연구원장 정수명 △교육연구원장 이동주 △도서관장 김미숙 △사도교양교육원장 김경래 △신문방송사주간 손정주 △교육정보원장 김태영 △교육박물관장 송호정 △KNUE심리상담센터장 김희정 △대학원 부원장 김한국 △중학교육연구실 부원장 최연철 △사도교양교육원 생활교

육부장 윤천택 △유아교육원장 김경철

부음

- ▲유정자씨 별세, 양희정(한국은행 경영시스템팀 과장)씨 모친상, 김재광(서울시 강북구청 주무관)씨 장모상 = 6일, 김을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6시, 02-909-4444
- ▲박준표(경철아구단 투수)씨 조모상 = 5일 오전 9시,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천지장례식장 101호, 발인 7일 오전 8시, 062-527-1000
- ▲배계섭(전 춘천시장)씨 별세 = 5일, 강원 춘천시 호반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33-252-0046
- ▲박서운씨 별세, 김경민(김포시청 공보팀장)씨 모친상 = 6일 오전, 김포우리병원 특실, 발인 8일, 031-999-1444
- ▲김은순씨 별세, 조성배(대전 중구 안전도시국장)씨 모친상 = 5일 오후 5시 9분, 대전 서구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042-471-1651

브루노 코센티노 “고동우로 불러주세요”

(오비맥주 사장)

한국이름 지어 현장경영 행보

“고동우로 불러주세요.”

오비맥주 신임사장 브루노 코센티노가 한국 이름을 지었다.

브라질 태생의 브루노 코센티노 사장은 취임 후 작명소를 통해 ‘고동우(高東佑)’라는 한국 이름을 짓고 현장 경영에 나섰다. 패밀리네임인 ‘코센티노’의 발음과 사주풀이 등을 결합해 작명된 고동우는 한자 자체는 ‘동쪽의 발전에 이바지하다’라는 뜻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



오비맥주 브루노 코센티노 신임사장

를 지닌다.

고동우 사장은 명함에 본명과 함께 한국 이름을 넣어 관계자들을 만날 때 마다 ‘고동우라고 합니다. 고사장으로 불러 주세요’라고 자신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